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9. 4.(목) 16:00
(지 면) 2025. 9. 5.(금) 조간

그 마음에 감사합니다. 그 변화에 함께합니다. ‘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’ 개최

- 9월 4일(목) ‘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’ 청주시에서 개최
- 유공자 포상, 제2회 지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9월 4일(목) 충청북도 청주 오송 컨벤션센터(OSCO)에서 ‘제3회 고향사랑의 날’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○ 매년 9월 4일인 ‘고향사랑의 날’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3년 지정되어 올해로 세 번째 해를 맞이했다.

○ 올해 상반기(1월~6월)까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약 349억 원이다. 같은 기간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 약 233억 원, 2024년에 약 200억 원에 비해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.

※ 모금액 : 2023년 (상반기 약 233억 1천만 원, 연간 총액 651억 원)

2024년 (상반기 약 199억 8천만 원, 연간 총액 879억 원)

□ 이날 기념식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,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.

○ 행사는 국민,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‘그 마음에 감사합니다. 그 변화에 함께합니다.’를 주제로 ▲주제영상 상영, ▲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, ▲지자체 우수사례 시상, ▲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.

○ 먼저, 고향사랑기부가 불어넣은 활력 속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과 답례품을 빚어내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‘주제영상’이 소개됐다.

○ ‘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’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.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부자, 민간플랫폼 담당자,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0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.

- 특히 올해는 3년 연속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고, 답례품으로 제공받은 쌀과 육류 등을 노인시설과 보육원, 한부모 가정에 재기부한 연속 기부자가 대통령 표창자로 선정되어 관심을 모았다.

□ ‘지자체 우수사례 시상’은 고향사랑기부제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, 지자체 관련 업무 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.

○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‘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’를 통해 특색있는 답례품,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금사업 발굴·운영 등 제도운영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발하고 있다.

○ 지난 8월 서면심사를 거친 29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*가 본선 진출 지자체로 선정됐으며, 9월 4일(목) 현장에서는 전문가 심사 점수에 청중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.

* 광주광역시 동구,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, 충청북도 본청,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, 전라남도 본청·곡성군, 경상북도 예천군, 경상남도 산청군

□ 한편, ‘지자체 우수사례 시상’을 위해 이날 오전에 진행된 ‘제2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’ 현장 발표에서는 지자체의 개성을 담은 답례품과 창의적인 홍보 방식들이 다채롭게 펼쳐져 이목을 집중시켰다.

○ 광주 동구는 지역 소상공인 생산 제품 위주로 답례품을 발굴해 답례품 제공업체 매출이 약 7억 5천만 원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.

○ 또한, 경북 예천군은 예천장터와 답례품 판매를 연계해 답례품 구매 편의를 강화했으며, 전남은 소방본부와 협력해, 주택화재 안전꾸러미를 소방관이 직접 설치하는 행정서비스형 답례품을 발굴했다.

○ 강원 강릉시는 경포 벚꽃축제, 강릉 단오제 등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홍보전략이 두드러졌다. 충북은 ‘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홍보부스’를 운영, 현장 홍보로만 기부액의 50% 이상을 모금했다.

- 경남 산청군은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청군 청소년 관악합주단 청소년을 후원했으며, 전북 고창군 역시 영선고등학교 야구부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의 꿈을 응원했다.
- 또한, 전남 곡성은 ‘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’ 사업으로 전국 최초 소아과 출장진료를 시행해 눈길을 끌었다.
- 윤호중 장관은 "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"라며 "앞으로도 세액공제 확대와 법인기부 허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"라고 밝혔다.
- 이어서, “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국민께서 고향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,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	책임자	과 장	박중근 (044-205-3501)
		담당자	사무관	배정아 (044-205-3505)



참고

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요 내용

구분	주요 내용	사진
광주 동구	▶ 따뜻한 변화의 바람!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의 기적! -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발달장애인 야구단을 지원, 야구단은 지난 5월 전국대회를 출전하여 첫 우승을 거두는 성과를 거둠 - 대한민국 명장 및 지역 예술작가 작품 등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하는 한편, 소상공인 위주로 답례품 판매자를 선정	 ET. 야구단 전국대회 우승
강원 강릉	▶ 관광·경제·주민복지 3박자 시너지! 지역경제 선순환의 꽃을 피우다 - 경포 벚꽃축제, 강릉 단오제 등 지역축제와 아르떼뮤지엄 등 주요 관광지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펼침 - 강릉의 자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숙박권, 식사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보에 노력	 강릉시 지역축제 홍보현장
충북 도청	▶ 기부로 피어난 따뜻한 복지, 충북의 행복이 커졌습니다 - 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대상, 농산물 손질 등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 - '찾아가는 충북 고향사랑기부 홍보부스'를 통해 기부금의 50% 이상을 지역축제, 출향민 행사 등 현장홍보로 모금	 '어르신 일하는 밥퍼' 기금사업
전북 고창	▶ 기부자의 공감에 쏠아올린 지정기부 조기 모금 완료 - 고창군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체 위기를 겪은 영선고 야구부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미래 야구선수를 육성하고 있음 - 고향사랑기부 홍보를 위해 우체국과의 업무 협약으로 우체국 택배박스와 서류봉투에 고창 고향사랑기부 스티커 부착	 영선고 야구부 지원사업
전남 도청	▶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하는 OK! Now 전남 - 전남 소방본부와 협력하여 주택화재 안전꾸러미(소화기, 감지기, 가스타이어 콕 등)를 소방관이 직접 설치 후 화재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행정서비스형 답례품 개발 - 나주 이슬촌마을, 장성 별내리마을 등 체험서비스형 답례품 개발	 주택화재안전꾸러미 답례품
전남 곡성	▶ 고향사랑기부제로 만든 65년만의 소아과 - 기금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 관내 소아청소년 출장진료,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상주진료를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- 독거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인구구조 특성을 반영하여, 마을 어르신 돌봄을 위한 공공형 마을빨래방 조성	 소아청소년과 출장진료 현장
경북 예천	▶ 다시 가고 싶은 예천, 고향을 바꾼 기부, 출향인이 만든 기적 - 농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악기 무상대여, 무료 교육, 각종 연주회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'꿈의 오케스트라 예천' 추진 - 지역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(예천장터)과 연계한 답례품을 개발하여 기부자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	 꿈의 오케스트라 예천
경남 산청	▶ 산청군! 고향사랑기부제로 도약의 꿈과 희망을 노래하다! - '산청 하모니 꿈 너머 꿈'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통해 산청 청소년 관악합주단의 악기구입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 - 지난 3월 산불피해에 '산청군 산불피해 복구 지원사업' 모금을 신속 개시하여 올해 하반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 예정	 산청 하모니 꿈 너머 꿈